

대림 제2주일(인권의 날)  
제1독서: 비록5, 1-9  
제2독서: 필립1,4-6,8-11  
복음: 루가3, 1-6

# 순정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루가3,4)

## 강론

### “인권을 짓밟는 법과 법질서”

이수현 신부 / 전동 천주교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마리아)을 통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분에게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의미의 존재이며 그분의 지상 존재의 근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드디어 깨달은 진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의 원천이시고, 또 이 진리의 완전한 증인이십니다. 인간 예수님은 흠없이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신 완전한 본보기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귀하고 사랑스럽고 끌어안고 싶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고, 병들어 신음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예수님은 더욱 가깝게,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시며 희망을 불어넣어주시면서 위로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책임과 권리는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주신 절대적이며 신성불가침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 인간의 절대 근본적 권리를 짓밟는 역사의 연속으로 그려져 왔고, 현재도 세상 곳곳에서 참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문명적인 인권유린이 계속하여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빼앗긴 우리의 인권을 되찾고 인간 품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제자로서 남아 있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온전한 인간이 되는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인권을 짓밟는 제도적 장치인 악법(국가보안법, 보호관찰법, 노동법, 집시법 등)을 폐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법은 사람들이 편히 살도록 만들어진 길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의 많은 악법들은 오로지 폭압적인 통치 수단에 불과함이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면 우선 치졸한 악법부터 없애는 작업에 앞장서야 하며, 이것이 곧 우리의 인권과 인격을 지키는 일임을 각성해야 합니다.

## 소리

### “오늘·벽·십자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기는 한해에 4억 달러(2,800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미국의 무기 수출 상대국인 34개국 중 4위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한다.

그토록 많은 돈을 무기 수입에 쓰니 교육이 아직도 이 모양이고, 그런 연쇄 반응으로 사회에 인간성 상실의 무서운 현상들이 그토록 자주 많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이다.

부패한 것이 오늘날 어디 정부 집권층뿐일까만 부도덕한 지 오래된 저들이 물러가기 전에는 사회악도 조국분단도 쉽사리 해결될 수는 없게 됐다.

엄청난 권력(행정, 사법, 입법)을 한손에 틀어쥐고 경찰력과 군사도 여의봉이며 경제력도 막강한 제편에 교육과 문화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세상인데다가 국민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제성(사치, 과소비, 낭비, 이기주의, 무질서)을 못버리고 있어 말하자면 정부가 너희 국민들 그따위면서 뭘 더 바라고 요구하는거나 식이니 아연실색이고 무섭고 가관이다.

현실진단만 하다가 처방도 없이 죽어갈 수는 없고 그래도 아직은 맑은 교회가 무슨 수라도 써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교회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회에도 법이 있는 것이다.

남은 길은 하나, 선거가 있지만 선거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도 없다. 선거처럼 모두들 시큰둥해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 어찌자는 것일까?

12월, 아무것도 발전한 것 없어 보이고, 감옥은 여전히 만원이고, 실종된 사람들은 아직도 묘연하고, 십자가는 벽벽에 걸려만 있고. 내가 당장 여기서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 남한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종]

### 순정이 산책



## “다시 인권주간을 맞으며”

UN은 1948년 12월10일 인권선언을 공포하였고 세계 각국은 매년 이날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UN은 또 1976년 1월3일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같은 해 3월23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을 발효케 하여 가입국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과함으로써 인권이 국제법규화하였고 한국은 지난해 7월10일 이들 규약에 가입했다.

돌이켜 볼 때 3공과 5공 시절 이 나라에는 법적으로만 인권이 그럴싸하게 선언되어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수많은 인사들이 다만 정부에 반대하는 언동을 했다 하여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당했고 밀실에서 고문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한 죽음까지 당했다.

5공의 억압체제는 어차피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붕괴될 위기에 내몰려 있었지만 87년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사건으로 종말을 고했던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6·29선언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화를 약속했고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정통성을 인정받는 6공이 들어섰다.

인적인 구성으로 볼 때 5공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둡기만 했던 군사문화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화로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평가되고 있는 6공 이후 이땅의 인권상황은 어떤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펴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6공 들어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대중의 정치적 자유나 생존권의 측면에서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인권상황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89년 이후 90년 7월말까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천7백48명이었다. 또 민가협 등 재야 9개 단체가 집계한 바로는 90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시국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1천2백53명으로 하루 평균 6명 풀이며 이는 제5공화국 시절 하루 1.61명에 비해 4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지난해 7월 말 현재 수감돼 있는 시국 관련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4백35명을 포함해 모두 1천3백79명으로



89년 말의 8백60명에 비해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시국사범, 정치범, 양심수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정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의 규약에 있는 양심수의 정의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응호함이 없이 양심에 입각한 신념의 표현을 이유로 구속된 사람”을 시국사범, 정치범 또는 양심수로 분류한다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물소지, 동조, 찬양, 고무 등 혐의 또는 제3차 개입금지 혐의로 구속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는게 변협측의 주장이다.

시국사범 등 형사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밀실고문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잠 안재우기와 협박 회유 등 저장도 고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사회는 무엇이고 민주화는 또 무엇인가. 수천 수만 마디의 미사여구나 학술적 정의가 필요치 않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창세1, 26-27)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다.

다시 인권주간을 맞으며 이땅에 억울하게 기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회가 어서 빨리 오도록 자비하신 주님께 엎드려 기구해본다.

신 광 연(가브리엘)

### 황수경산부인과

여성의 산부인과 전문의 황수경 (크리스티나)  
이승렬 (엘리나)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결혼·회갑·돌·기타  
출장 전문

### 허바 허바 시장

권문오(안드레아)  
전주시 효자동1가 193-7  
☎ 221-4802, 224-1720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잡 간 /

# “인간, 그 존엄성은?”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다섯 군데로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릎과 허벅지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되게 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너까리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습니다.”

윗 글은 김근태 씨가 '85년 12월 19일 제1차 공판에서 본인이 당한 고문을 밝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내용이다. 나는 김근태 씨가 진술한 고문의 내용을 보고, 법적인 시시비비를 떠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짐승처럼 다루는 그 순간, 고문을 하는 쪽도 고문을 당하는 쪽도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민가협(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협의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88년부터 '91년 11월 10일까지 무려 5,186명의 양심범이 구속, 하루 평균 4.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집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법이 권력과 힘에 의해 남용되고 인권이 무시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오늘은 인권주일이다. 그리고 12월 10일은 1948년 UN이 선언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일깨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채 죽어가는 형제가 또 다른 예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교 구 소 식

1. 성탄 위문금(품)수집 : 성탄을 앞두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장병들, 추운 감옥에서 지내는 수인들과의 나눔을 위해 위문금, 위문품, 위문편지를 수집합니다.  
마감-12월21일(토)까지 사회복지회(84-5290).
2. 교구 법원 : 12월9일(월) 오전10시 교구청.
3.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기도회(지성룡 일경 실종사건 보고) : 12월9일(월) 오후7시30분 중앙 성당, 주관-정의평화위원회.
4.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12월9일(월) 오후7시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5. 빈첸시오회 회장단 모임 : 12월9일(월) 오후5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6.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12월10일(화) 오전10시30분, 대상-미혼자, 임신·피임을 원하는 분, 교구청 별관 4층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7. 치명자산 성지개발 헌금 : 서울 재경 숲정회에서 3차로 12,003,000원을 보내왔습니다.
8. 꾸르실료 교육 안내 : 남성40차 1월9일-12일, 여성37차 1월16일-19일, 남성41차 1월23일-26일, 여성38차 2월20일-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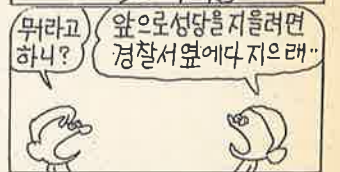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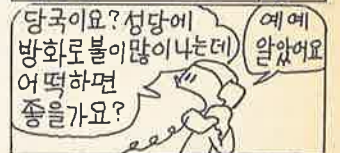
- 성소모임 동정성모회 : 12월15일 오후2시 동양아파트 E동 403호 (0652)72-5266.  
전교가르멜수녀회 : 12월15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74-9262.  
살레시오수녀회 : 12월15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내 평화신문사 (062)227-1017.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물 절약-작은 것에서부터

양변기나 물 받는 통 속에 맥주병이나 주스병을 넣어두면 물이 훨씬 절약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천에 옮겨 신자다운 모범을 보입니다.

## 요십이 (957) 김병오



### '92학년도 유치부 원아 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호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53-1411  
 효자(삼천동쌍용APT앞) 221-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안젤라)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한복사롱**  
 전 광 원 (마르코)  
 김 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신1가 120-4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혼수(회갑) 옷감, 혼수 이불  
 맞춤, 약혼복, 커튼  
**서울주단**  
 보드른 이불 전주대리점  
 (중앙 성당 옆)  
 김 완 준(안토니오)  
 박 윤 화(베로니카)  
 ☎ 252-0453, 77-5095

**우리집**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 성 환 (조기리아)  
 김 명 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중앙성당옆)  
 ☎ 85-8848

**동서로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울젠, 관·현악기  
 일반 악기, 각종 수입악기 판매  
 김태우(알폰소) 황진숙(안젤라)  
 동서관동로 다가교 입구  
 ☎ 88-7717~8

**이 황 주 유 소**  
 이 명 구(베네딕도)  
 황 연 화(울리아)  
 ☎ 856-8998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판공성사 : 10일~13일 후3시~5시(면담후 성사표 배부) 10일 -중노1가1구역, 11일-중노1가2구역, 12일-남노송동구역, 13일-중노2가1구역
  2. 12월 영세자 면담 : 13~14일 후3시~4시, 저녁미사 후
  3. 사목회 총회 : 오늘 후3시(제단제장 전원 참석바랍니다)
  4. 장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5. 꾸리아 : 오늘 후2시.
  6. 교무금 납부에 좀더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7. 금주침소 : 중노2가6,7만 차주침소 : 중노2가8,9만
- ☐ 지난주 봉헌금 : 815,770원 ☐ 교무금 : 2,585,15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군

1. 판공성사 일정 : 12월 11일-14일 시간-오후3시~5시, 밤7:30분~9시. 기타 유인물 참조바람.
  2. 성모상 건립 헌금 : 익명(10만원) 익명(5만원) 김아기(3만원)
  3. 영세자 집중교리 : 16일~21일 시간-밤7시30분~
  4. 성시간 : 12월 밤11시~새벽4시, 성제장복 밤11시.
  5. 고인 수습생을 위한 미사 : 9일(월) 저녁7시
  6. 회합 :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오후2시) ③청년회(저녁미사 후) ④안나회(12일 오전10시) ⑤여성분과회(14일 오전10시) ⑥성우회(15일 공식미사후)
- 성당침소(14일) : 다위의 탐Pr, 일치의 모후Pr  
금주전례 : 경관급 독서-지혜용씨 부부 봉헌-양은수씨 가족  
차주전례 : 정현자 독서-유복규씨 부부 봉헌-김남희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610,430원 ☐ 교무금 : 1,878,07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 오늘은 대림2주일입니다.
1. 꾸리아 : 공식미사 후
  2. 판공일정 : 9일-색장, 흰색장. 10일-상신, 하신. 11일-원신, 수월. 12일-의암, 마치. 13일-어두. 14일-기타, 학생, 직장인. 16일-신홍, 셋디, 백암. 17일-서당, 공기. 18일-내정
  3. 성서읽기 : 히브7장-13장 4. 청소봉사 : 바다의별Pr
  5. 성가절, 청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금주전례 : 해설-이승복 독서①양주태 ②송경자 봉헌-김봉길, 최원규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유순진 ②이석남 봉헌-최상옥, 서병석씨 부부
  7. 탈삼미사 : 8일(오늘) 저녁6시, 어두리 김현주씨씩
- ☐ 지난주 봉헌금 : 327,110원 ☐ 교무금 : 256,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오늘은 대림제2주일(인권의날)  
※ 다음주일은 자신의날 2차헌금있음
1. 회의 : 제속프란치스코3회-12월8일(오늘)오후2시 ②성심회-12월13일(금)오후2시 ③성모회-다음주일공식미사후
  2. 알림 : ①91추계판공성사-12월3일(화)부터20일까지 평일 저녁미사 후,(성사표는 사무실에서 수시 발부 하오니 미리마리 준비하셔서 한분도 빠짐없이 판공에 입하시기바랍니다.) ②예비자중합교리-12월16일부터20일까지 저녁미사 후, ③영세자-12월22일(일)공식미사 중(※ 영세자와대부모는 오전9시30분까지집결바랍니다. 시간엄수) ④봉성체-12월18일(수)
- 축! 결혼 : 신랑-강진석(안드레아)군과 신부-안윤희양.  
12월8일12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 608,450원 ☐ 교무금 : 848,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점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전신자 반모임연수 : 11일(3단지아파트동편), 12일(3단지아파트서편), 13일(서완산동1가, 안행동), 18일(서완산동2가, 표자마을), 19일(신촌, 금호구역)→매일 오후1시~5시, 17일(전구역 남교우)→오후7시30분
  2. 성탄판공성사 : 용머리 까지 참고
  3. 통신교리 이수자, 유아영세신장 : 사무실
  4. 무료침소, 지압 : 매주일 공식미사 후 나교리실(김수백형제봉사)
  5. 불우이웃돕기 성탄카드 판매
- ☐ 지난주 봉헌금 : 735,480원 ☐ 교무금 : 793,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특 수

- ※ 가을판공전에 금년 교무금 완납합니다.
1. 금주모임 : ①윤지웅, 권상연 순교200주년 기념 및 본당의날 미사봉헌(공식미사) ②자모회(오전10시) ③본당발상지 기념비축성(11시미사 후)-본당부스출발 ④일치의 모후Cu(오후2시) ⑤사목회(기념비 축성식 후) ⑥구역봉사자 모임(저녁7시)
  2. 판공성사 및 신자면담 : (오전10~12시, 오후2시~5시) 9일(전동,서교동) 10일(동교동,서완산동) 11일(동완산동,중앙동,경원동) 12일(풍남동,남노송동) 13일(기타동)
  3. 반기도회 : 10일~13일(반별로 실시) 11시.
  4. 든-보스교회 : 11일(수)저녁7시 5. 구역반장회의 : 12일(목)오전
- ※ 금주보수비헌금액 : 2,250,000원 ※ 현재모금총액 : 255,038,801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 완 규

- ※ 대림시기동안 성미운동으로 사랑의나눔을 다같이 나누시다.
1. 본당 판공성사 : 16일(월)후7시,왕회에걸에 모두 참여바람
  2. 공소 판공성사 : 10일 마음리(진영춘),12일 양생,우름티(조석형),13일 광곡,평촌(이문자) 시간-전10시.
  3. 초·중·고생 판공성사 : 14일 후3시~15일까지. 미사 전후
  4. 청년회 정기총회 : 오늘 후5시(성찬식과함께) 꼭 참석바람
  5. 제대회 월례미사 : 13일 후3시 새로오신 신자가임 환영함
  6. 교육불참자 피정 : 14일~15일 천호피정의집(센터 4시출발)
  7. 학생회 임원개편 : 회장-심효섭,부회장-임지현,총무-김복성
  8. 교도소 재사자 세례식 : 11일 후1시,대부 협조를 바랍니다.
  9. 회의 : 자모회-어머니미사 후, 울뜨레아-다음주 공식미사 후
  10. 지성품의경 실증사건 기도회 : 9일 후7시 중앙성당
- ☐ 지난주 봉헌금 : 702,100원 ☐ 교무금 : 987,5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성모회·청년회 : 오늘미사 후
2. 울뜨레아 : 10일(화) 오후8시
3. 자모회 : 다음 주일미사 후
4. 성탄 성가연습 : 매주 금요일 미사 후
5. 전례자 모임 : 17일(화) 오후8시
6. 교무금 납부 및 교적정리를 부탁드립니다.
7. 송년회 : 13일(금)오후7시. 신대림회관-남성모임
8. 금주전례 : 김용부 독서·봉헌 : 한기일·윤정호  
차주전례 : 장병순 독서·봉헌 : 형공일·윤장호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증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1. 성당복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2. 레지오단원 연차전목회 연기(12월29일)
  3. 성탄반 예비자 집중교리 및 피정 : (교리 : 10,11,12,17,18,19매일후7시 피정 : 15일 08 : 30~17시)
  - ※ 영세일 22일(월)후3시 미사 중
  4. 모임안내 : ①울뜨레아-오늘 11시미사 후
  5. 청년어머니 성가대 모집
  6. 초·중·고 교리교사모집
  7. 성탄판공성사 :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 공동판공성사일-17(화)후7시부터
- ☐ 지난주 봉헌금 : 1,220,390원 ☐ 교무금 : 4,060,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홍 두

- ※ 제3대 사목회장 임의도(시문)담선축하하며 수고하시겠습니다.
1. 레지오연총친목회 : 공식미사 후 2. 울뜨레아 : 공식미사 후
  3. 제대회, 빈전시오회 : 1일피정 9(월)9시미사 후
  4. 성모, 자모회 : 13(금)10시미사 후
  5. 판공성사 : 10(화)~12(목)본당판공일정 게시판 참조 오전9:00~12:00, 오후2시~5시, 저녁7:30~9:30, 13(금)오후2시특별, 저녁이서 6. 대입학력고사 수습생을 위한 미사 : 14(토)7시
  7. 유아세례 : 14(토)오후2시 8. 돌담회정기총회 : 12(목)7시
- 차주모임·사목회, 자신의날2차헌금 신축헌금봉헌액-2,440,000원  
금주전례 : 해설-강진상 독서①권병재 ②이정희  
기도①최자성 ②김숙경  
차주전례 : 해설-점이룡 독서①권일만 ②표순례  
기도①김창선 ②이금연
- ☐ 지난주 봉헌금 : 1,060,430원 ☐ 교무금 : 4,951,000원